

成人女性の 年齢別 파운데이션 着用失態 研究  
-브래지어와 거들을 中心으로-

金 英 淑

西南大學校 패션디자인學科 教授

A Study on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of  
Foundation Garment for Adult Women  
-Focusing on the Brassiere and Girdle-

Kim, Young-Soo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r the basic data useful to the effectiv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foundation garment befitting adult women's shapes and preferences, and thereby, help them improve their apparel life.

For this purpose, 563 Korean women aged between 20-59 were sampled to survey their recognition and actual wearing condition of foundation garments and positive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s and thereupon, determine the correlations among them by age group. The raw data of this study is processed by SPSS Win(10.1)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chi^2$ -test, ANOVA, Duncan-test.

The most of adult women were aware of their foundation size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m wore brassieres, while a half of them used the girdles. The adult women had 5.7 Brassieres and 2.2 Girdles. The use of the foundation depended much on user's age or seasons. They had begun to wear Brassieres at their age of 15 on an average and Girdle around their age of 19 depending their individual needs.

It has been found through this study that adult women's is actual wearing condition of foundation garments differ by age group, which may well suggest that foundation production need to consideration this age-wise practices when setting up their foundation produc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Key Words** : Foundation Garment(파운데이션), Adult Women(성인여성),  
Brassiere(브래지어), Girdle(거들)

## I. 서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진보는 새로운 섬유 개발과 의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 및 생활양식까지 크게 바꾸어 놓음으로서 여성의 활동영역도 상당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의복의 개념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해 의복의 미적, 사회적 특성과 함께 기능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능성의류인 파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에 대한 재인식을 불러왔다.

즉, '신체를 의식한다'라는 바디 콘셔스 룩(Body Conscious Look)에 대한 여성의 의식변화에 편승하여 균형 잡힌 건강한 체형과 입었을 때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피트성과 활동성이 겸비된 파운데이션에 대한 강한 욕구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싶다는 필요를 그대로 상품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의 체형은 성별, 민족, 거주지역, 생활상태, 영양상태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며<sup>1)</sup> 각 연령층마다 골격, 근육, 특히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위치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게되어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신체에 밀착하여 제 2의 피부역할을 하여 보정과 위생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파운데이션(Foundation Garment)의 경우는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파운데이션 생산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단일 아이템별 전문화, 최고급 브랜드의 육성, 수입완제품과 라이선스 브랜드의 확보, 연령층의 급속한 세분화로 인한 브랜드의 차별화 등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체형이 자연적·환경적 여건 및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시판 파운데이션 의복의 경우, 체형 변화가 적고 이상적인 실루엣을 가진 20대 젊은 층의 인체 윤곽과 비례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체형변화와 함께 연령특성에 따른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행하여 제품의 고급화와 함께 기능성·심미성이 일치된 우수한 제품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파운데이션에 관한 연구가 여러 방면으로 진척되어 왔으나 그 대부분은 단품목에 한정되거나 특정 연령에 대한 실태파악에 그치고 있어 전체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파운데이션 착용실태 조사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파운데이션 가먼트의 대표격인 브래지어와 거들의 실제적인 착용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령별로 조사·연구함으로써 성인여성의 연령별 기호와 특성이 반영된 우수한 파운데이션의 생산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파운데이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59세 성인여성으로 2005년 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2005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563명의 설문지가 자료처리에 이용되었다.

###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총 53문항의 설문지로서 설문지 구성을 위한 자료는 선행연구<sup>2)3)4)5)6)7)8)9)10)</sup> 등 파운데이션 착용실태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파운데이션 관련업체 디자이너와 머천다이지와의 면

담 및 업체 제공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신체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과 신체적인 변인인 키, 몸무게,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의 신체치수에 관한 4문항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치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실태

파운데이션 착용상태, 착용방법, 착용시간, 착용목적, 미착용이유, 시착시기, 소유매수에 관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연령별 파운데이션의 치수 인지도 및 치수 분포도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치수 인지도 관련 2문항과 착용하고 있는 브라지어와 거들의 치수 2문항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연령별 파운데이션의 세탁 및 관리

파운데이션의 세탁 및 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세탁방법, 파운데이션 변형요인,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이익제기 여부, 수선의뢰 여부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자료는 SPSS WIN(10.1)로 전산처리 하였다. 신체치수, 파운데이션 시착연령, 소유매수의 경우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F-test로 유의성을, Duncan-test로 사후검증 하였으며 그 외의 착용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하여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행하여  $\chi^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전 항목별 무응답은 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신체적 특징

1) 연령분포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가 29.1%, 30대가 27.5%, 40대 22.4%, 50대 21.0%로 총 563명이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연령(세)	인원수(명)	백분율(%)
20-29세	164	29.1
30-39세	155	27.5
40-49세	126	22.4
50-59세	118	21.0
합계	563	100.0

2)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인지신체치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키는 159.9cm, 몸무게가 54.1kg, 가슴둘레 85.6cm, 엉덩이둘레 89.8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키는 20대(161.6)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몸무게와 가슴둘레는 50대가 57.6kg과 89.4cm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치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30대의 경우 86.4cm로 다른 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치수를 나타내었고 20대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제 5차 한국인 신체치수조사 자료<sup>11)</sup>와 본 연구의 인지신체치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성인여성들은 자신의 키는 실제보다는 크게 몸무게는 실제보다 작게 알고 있는 경향으로 로러지수는 전체평균이 1.3으로 나타나 비교적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마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신체치수를 더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40대가 50대의 경우는 키를, 30대의 경우는 엉덩이둘레 치수를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실태

### 1)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현황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브라지어를 착용하는 경우는 97.7%가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거들의 경우도 64.8%가 착용한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인지신체치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신체치수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값
키(cm)	161.6(4.4) A	160.0(4.4) B	159.4(4.7) B	157.9(4.5) C	159.9(4.7)	15.7***
몸무게(kg)	50.6(4.8) C	83.8(5.6) B	56.3(6.1) A	57.6(6.1) A	54.1(6.4)	40.0***
가슴둘레(cm)	82.5(4.9) B	83.8(5.6) B	87.9(6.1) A	89.4(6.1) A	85.6(6.3)	25.6***
엉덩이둘레(cm)	90.0(5.3) A	86.4(10.3) B	91.6(7.2) A	91.4(12.4) A	89.8(9.3)	3.9*
로러지수	1.2(0.2) D	1.3(0.1) C	1.4(0.1) B	1.5(0.2)	1.3(0.2)	95.8***

문자는 Duncan값임(A>B>C) p<.05\* p<.01\*\* p<.001\*\*\*

<표 3>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신체치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신체치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키(cm)	160.7(4.9)	159.3(5.1)	158.1(5.0)	157.2(5.0)	156.1(4.9)	154.3(5.1)
몸무게(kg)	53.5(7.1)	54.8(7.5)	55.2(7.6)	57.2(7.8)	57.4(7.1)	60.2(7.9)
가슴둘레(cm)	82.1(5.0)	83.7(5.4)	84.5(5.4)	86.4(5.5)	87.2(5.3)	90.2(5.4)
엉덩이둘레(cm)	91.2(4.9)	91.6(5.1)	91.0(5.2)	92.1(5.2)	92.4(4.9)	93.5(5.2)
로러지수	1.28	1.34	1.39	1.47	1.50	1.64

출처: 제 5차 한국인 신체치수조사 자료이용(Size코리아)

나타나 브래지어와 거들은 성인여성들이 착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임이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브래지어와 거들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률이 낮고 특히 50대의 미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방식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방식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파운데이션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하는 경우는 40대가 61.3%로 가장 높았으며 거들만 착용하는 경우는 50대가 1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착용하는 경우는 20대(39.2), 30대(35.2%), 40대(27.9%), 50대(24.4%)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갖춰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시간

(1) 연령별 브래지어 착용시간

성인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6>와 같고, 전체적으로 과반 이상인 51.6%가 24시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잠잘 때만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26.3%, 외출 시만 착용이 21.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24시간 착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반대로 외출 시만 착용하는 경우는 50대로 갈수록 응답률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의례적으로 브래지어

<표 4>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현황

명(%)

연령 종류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F-값
브래지어	164(100) A	154(99.4) A	124(98.4) A	108(91.5) B	550(97.7)	9.0**
거들	115(70.1) A	108(69.7) A	76(60.3) AB	66(56.0) B	365(64.8)	3.0*
전체	164(29.1)	155(27.5)	126(22.4)	118(21.0)	563(100)	

문자는 Duncan값임(A>B>C) p<.05\* p<.01\*\* p<.001\*\*\*

<표 5>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방식

응답자(%)

연령 종류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미착용	8(1.1)	26(3.8)	8(1.2)	40(7.3)	82(3.3)
브래지어만 착용	377(53.9)	342(49.3)	417(61.3)	284(52.0)	1269(51.4)
거들거들만 착용	19(2.7)	38(5.5)	14(2.1)	55(10.1)	126(5.1)
브래지어+거들	274(39.2)	244(35.2)	190(27.9)	133(24.4)	841(34.1)
전체	699(28.3)	694(28.1)	680(27.6)	546(22.1)	2468(100)

복수응답처리하였음

를 착용한다고 한 강여선<sup>12)</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연령별 거들 착용시간**

성인여성의 거들 착용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전체적으로 외출 시만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생리기간에만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2%로 성인여성들은 거들의 경우 브래지어와 달리 하루일과나 일상생활 중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에만 착용하는 경우는 0.7%로 응답해 더운 여름에는 거들의 착용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유의적 차이를 보여 외출 시만 착용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착용률이 높았고 생리기간에만 착용하는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착용률이 높게 나타나 거들의 경우도 브래지어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례적인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착용률이 높았고 생리기간에만 착용하는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착용률이 높게 나타나 거들의 경우도 브래지어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례적인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령별 파운데이션 착용목적**

**(1) 연령별 브래지어 착용목적**

성인여성들의 연령별 브래지어 착용목적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성인여성들은 젓꼭지점 등 가슴형태가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66.1%)이 가장 큰 착용목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작 시

**<표 6> 연령별 브래지어 착용시간**

명(열%)

착용시간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24시간 착용	106(65.0)	90(58.8)	50(39.7)	39(35.5)	285(51.6)	$\chi^2=68.4^{***}$ $df=12$ $p<.001$
취침시만 착용	40(24.5)	46(30.1)	36(28.6)	23(20.9)	145(26.3)	
외출시만 착용	17(10.4)	15(9.8)	39(31.0)	46(41.8)	117(21.2)	
여름에만 착용	0(0.0)	1(0.7)	1(0.8)	1(0.9)	3(0.5)	
전체	163(29.5)	153(27.7)	126(22.8)	110(19.9)	552(100)	

**<표 7> 연령별 거들 착용시간**

명(열%)

착용시간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24시간 착용	3(2.1)	4(3.5)	2(2.2)	2(3.0)	11(2.7)	$\chi^2=48.8^{***}$ $df=21$ $p<.001$
취침시만 착용	13(9.2)	12(10.5)	4(4.4)	7(10.5)	36(8.7)	
외출시만 착용	58(41.1)	51(44.7)	53(58.9)	50(74.6)	212(51.5)	
생리중에만 착용	55(39.0)	35(30.7)	22(24.4)	4(6.0)	116(28.2)	
여름에만 착용	0(0.0)	2(1.8)	1(1.1)	0(0.0)	3(0.7)	
겨울에만 착용	3(2.1)	8(7.0)	7(7.8)	3(4.5)	21(5.1)	
전체	132(33.1)	112(33.0)	89(26.3)	66(16.5)	399(100)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55.4%),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함(52.8%), 습관상(51.5%), 처진 가슴을 받쳐주기 위함(46.9%) 순으로 나타나 정숙성 효과, 방진효과와 정용효과, 바스트업(Bust-up) 효과 등 여러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상 착용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젖꼭지점 등 가슴형태가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함 등이 50대에 비해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인여성은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가슴형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정용효과를 위해 또는 정숙성, 방진기능을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성인여성의 경우 브래지어의 착용목적으로 유행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 외의 착용

의 중요한 목적인 유행성이 내의 중 파운데이션 의류의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 중시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연령별 거들 착용목적**

성인여성들의 거들 착용목적은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상으로 착용한다는 경우가 89.8%로 브래지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랫배의 균형을 높여주기 위함이 46.3%, 생리때 활동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37.9%, 처진 엉덩이를 받쳐주기 위해 36.3%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여성의 거들 착용이유는 신체보정성, 안정성 등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신체의 균형과 비만방지를 위해가 27.7%와 15.7%로 나타나 몸매관리를 목적으로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생리때 활동에 안정감을 주

**<표 8> 연령별 브래지어 착용목적**

응답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착용목적						
습관상	102(62.2)	88(56.8)	51(40.5)	49(41.5)	290(51.5)	$\chi^2=20.1***$
동작 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	106(64.6)	81(52.3)	63(50.0)	62(52.5)	312(55.4)	$\chi^2=8.2**$
젖꼭지점 등 가슴형태가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	121(73.8)	99(63.9)	86(68.3)	66(55.9)	372(66.1)	$\chi^2=10.4**$
처진 가슴을 받쳐주기 위함	69(42.1)	77(49.7)	53(42.1)	65(55.1)	264(46.9)	$\chi^2=6.4**$
옆으로 퍼진 가슴을 모아주기 위함	61(37.2)	88(56.8)	35(27.8)	23(19.5)	160(28.4)	$\chi^2=11.2**$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함	108(65.9)	81(52.3)	61(48.4)	42(35.6)	297(52.8)	$\chi^2=26.7***$
가슴의 크기를 크게 보이기 위함	51(31.1)	99(63.9)	19(15.1)	4(3.4)	94(16.7)	$\chi^2=41.3***$
가슴의 크기를 작게 보이기 위함	10(6.1)	77(49.7)	9(7.1)	8(6.8)	34(6.0)	$\chi^2=1.0$
패션으로	14(8.5)	41(26.5)	26(20.6)	23(19.5)	78(13.9)	$\chi^2=14.1**$
심리적으로 허전하여	48(29.3)	86(55.5)	22(17.5)	37(31.4)	145(25.8)	$\chi^2=7.7*$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p<.05\* p<.01\*\* p<.001\*\*\*

<표 9> 연령별 거들 착용목적

응답수(%)

착용목적	연령					합계	유의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습관상	147(91.3)	145(93.6)	110(87.3)	101(85.6)	503(89.8)	$\chi^2=5.9^*$	
심리적으로 불안(허전)하여	11(6.8)	10(6.5)	9(7.1)	12(10.2)	42(7.5)	$\chi^2=1.6$	
처진 엉덩이를 위로 받쳐주기 (hip-up)위함	67(41.6)	57(36.8)	36(28.6)	43(36.4)	203(36.3)	$\chi^2=5.2^*$	
비만 방지를 위함	26(16.2)	18(11.6)	24(19.1)	20(17.0)	88(15.7)	$\chi^2=3.2^*$	
아랫배의 군살을 눌러주기 위함	70(43.5)	78(50.3)	60(47.6)	51(43.2)	259(46.3)	$\chi^2=2.1$	
신체의 균형을 좋게 기 위함	49(30.4)	44(8.4)	31(24.6)	31(26.3)	155(27.7)	$\chi^2=1.4$	
생리때 활동에 안정감을 주기 위함	102(63.4)	64(41.3)	35(27.8)	11(9.3)	212(37.9)	$\chi^2=91.5$	
대퇴부를 날씬하게 보이기 위함	18(11.2)	6(3.9)	16(12.7)	51(9.1)	51(9.1)	$\chi^2=7.9^*$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기 위함	14(8.7)	18(11.6)	16(12.7)	18(15.3)	66(11.8)	$\chi^2=3.0^*$	
보온을 위함	20(12.4)	17(11.0)	10(7.9)	10(8.5)	57(10.2)	$\chi^2=2.1$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p<.05\* p<.01\*\* p<.001\*\*\*

기 위해의 경우 20대는 63.4%, 50대는 9.3%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생리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거들을 착용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를 가늘어 보이기 위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착용률이 높게 나타나 체형변이에 따른 체형보정 효과를 목적으로 거들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파운데이션 미착용 이유

(1) 브래지어 미착용 이유

성인여성들의 연령별 브래지어 미착용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미착용 이유는 답답함(44.1%)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낌이 18.9%,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함이 14.2%로 나타나 성인여성들은 답답함, 이물감, 체온상승

등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답답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함의 경우 20대는 7.6%, 30대는 12.9%, 40대는 11.9%, 50대는 27.4%로 나타났으며,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끼는 경우 20대의 경우는 20대는 12.7%, 30대는 21.3%, 40대는 19.1%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질면에 있어서 부드럽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인 브래지어 소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령별 거들 미착용 이유

성인여성들의 연령별 거들 미착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계속 착용시 답답함을 72.7%가 이유로 들었고, 소화기 잘 되지 않아서 38.9%,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껴짐 33.5%,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



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함 31.4%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들은 답답함, 체온상승, 이물감 등 생리 위생적인 이유로 거들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기능적이고 위생적이며 피부감촉이 좋은 거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는 동작 시 거들의 위치를 바로잡기 귀찮아서,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끼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40대의 경우는 답답함, 이물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0대의 경우는 20대와 유사한 성향을 보였고 50대의 경우는 전 항목에 걸쳐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0> 연령별 브라지어 미착용 이유

응답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미착용 이유						
답답함	52(33.1)	56(36.7)	71(56.4)	66(56.4)	245(44.1)	$\chi^2=26.5***$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함	12(7.6)	20(12.9)	15(11.9)	32(27.4)	79(14.2)	$\chi^2=22.9***$
동작 시 브라지어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음	12(7.6)	12(7.7)	9(7.1)	17(14.5)	50(9.0)	$\chi^2=5.5*$
가슴의 모양을 변화시켜 자연스런 미를 감소시킴	2(1.3)	2(1.3)	3(2.4)	2(1.7)	9(1.6)	$\chi^2=0.7$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낌	20(12.7)	33(21.3)	24(19.1)	28(23.9)	105(18.9)	$\chi^2=6.3**$
많이 파인 걸옷을 입을 때 파운데이션이 겹으로 드러나서 신경쓰임	7(4.5)	8(5.2)	11(8.7)	8(6.8)	34(6.1)	$\chi^2=2.6*$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p<.05\* p<.01\*\* p<.001\*\*\*

<표 11> 연령별 거들 미착용 이유

응답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미착용 이유						
답답함	119(73.5)	112(72.8)	99(78.6)	78(66.1)	408(72.7)	$\chi^2=4.8*$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함	50(30.9)	53(34.2)	46(36.5)	27(22.9)	176(31.4)	$\chi^2=6.1*$
동작 시 거들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음	18(11.1)	15(9.7)	9(7.1)	9(7.6)	51(9.1)	$\chi^2=1.7$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게 느낌	69(42.6)	60(38.7)	33(26.2)	26(22.0)	188(33.5)	$\chi^2=17.9***$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58(35.8)	57(36.3)	56(44.4)	47(39.8)	218(38.9)	$\chi^2=2.6*$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p<.05\* p<.01\*\* p<.001\*\*\*

6) 연령별 파운데이션 시착연령

파운데이션의 시착연령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브래지어의 경우 평균 15세이고 거들의 경우는 19세로 나타나 브래지어는 신체발육기인 10대에 처음 브래지어를 착용을 시작하는 반면 거들은 신체성장이 거의 멈춘 시기인 19세 이후에 착용을 시작하여 거들의 착용시기가 브래지어 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브래지어와 거들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시착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전기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연구한 차수정<sup>13)</su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전기여학생의 브래지어 시착연령은 12-13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손희순<sup>14)</sup>의 연구결과 저학년일수록 시착연령이 빨라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앞으로 파운데이션의 시착연령은 점차 하향될 것으로 사료된다.

7) 연령별 파운데이션 소유매수

성인여성의 연령별 파운데이션 소유매수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은 평균적으로 브래지어 5.7매, 거들 2.2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소유매수를 조사한 안영숙<sup>15)</sup>에 의하면 브래지어를 평균 5.1매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0.6매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 파운데이션 소유매수는 유의적 차이가 있어 연령이 감소할수록 파운데이션 소유매수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표 12> 연령별 파운데이션 시착연령

평균(표준편차)

품목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값
브래지어	13.9(1.1) D	14.5(1.4) C	15.5(1.9) B	16.9(3.1) A	15.0(2.2)	57.4***
거들	16.3(3.0) D	18.7(3.8) C	20.4(5.8) B	23.1(7.9) A	19.0(5.6)	32.8***

문자는 Duncan값임(A>B>C) p<.05\* p<.01\*\* p<.001\*\*\*

<표 13> 연령별 파운데이션 소유매수

평균(표준편차)

품목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값
브래지어	6.1(3.0) A	5.9A(2.4) A	5.6(3.6) B	5.0(2.6) B	5.7(2.9)	3.3**
거들	2.5(1.4) A	2.4(1.5) A	1.9(1.5) B	1.8(1.7) B	2.2(1.5)	6.6***

문자는 Duncan값임(A>B>C) p<.05\* p<.01\*\* p<.001\*\*\*

### 3. 파운데이션 치수인지도 및 분포도

#### 1) 연령별 파운데이션 치수인지도

##### (1) 연령별 브라지어 치수인지도

브라지어 치수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은 브라지어의 치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9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95.5%, 20대 94.5%, 40대 92.9%, 50대 89.8% 순으로 30대 집단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 (2) 연령별 거들 치수인지도

연령별 거들 치수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표 15>, 성인여성의 62.2%가 자신의 거들 치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브라지어에 비해 낮은 중 정도의 인지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9.0%, 20대 64.6%, 40대 59.5%, 50대는 52.55로 나타내 30대 집단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50대와 40대는 40% 이상이 모른다

고 응답하여 낮은 인지결과를 보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치수인지를 살펴본 결과 거들보다는 브라지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20-30대 젊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치수인지를 보였는데 이는 출산 및 수유로 인해 변형된 체형을 보정하는데 관심이 있어 파운데이션 치수에 민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령별 파운데이션 치수분포도

##### (1) 연령별 브라지어 치수분포도

성인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브라지어의 치수 분포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성인여성이 착용하여 있는 브라지어 치수는 75A(21.3%), 80A(16.7%), 85B(7.6%), 90A(6.8%), 95A(5.3%), 90B(3.4%) 순으로 밀가슴둘레는 75-90cm가, 컵치수는 A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연령별 브라지어 치수인지도

명(열%)

연령 인지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안다	155(94.5)	148(95.5)	117(92.9)	106(89.8)	526(93.4)	$\chi^2=4.1*$ $df=3$ $p<.05$
모른다	9(5.5)	7(4.5)	9(7.1)	9(7.1)	12(10.2)	
전체	164(29.1)	155(27.5)	126(22.4)	118(21.0)	563(100.0)	

<표 15> 연령별 거들 치수인지도

명(열%)

연령 인지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안다	106(64.6)	107(69.0)	75(59.5)	62(52.5)	350(62.2)	$\chi^2=8.6*$ $df=3$ $p<.05$
모른다	58(35.4)	48(31.0)	51(40.5)	56(47.5)	213(37.8)	
전체	164(29.1)	155(27.5)	126(22.4)	118(21.0)	563(100.0)	

<표 16> 연령별 브라지어 치수분포도

명(%)

연령 치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65AAA	1(0.7)	1(0.7)	0(0.0)	0(0.0)	2(0.4)
70AA	2(1.3)	0(0.0)	0(0.0)	0(0.0)	2(0.4)
70A	3(1.9)	1(0.7)	1(0.9)	2(1.9)	7(1.3)
75A	61(39.4)	41(27.7)	9(7.7)	1(0.9)	112(21.3)
75B	11(7.1)	13(8.8)	2(1.7)	1(0.9)	27(5.1)
75C	1(1.3)	1(0.7)	1(0.9)	1(0.9)	5(1.0)
80A	35(22.6)	26(17.6)	23(19.7)	12(11.3)	96(18.3)
80B	13(8.3)	10(6.8)	3(2.6)	4(3.8)	30(5.7)
80C	1(0.7)	0(0.0)	0(0.0)	0(0.0)	1(0.2)
80D	1(0.7)	0(0.0)	0(0.0)	1(0.9)	2(0.4)
85A	9(5.8)	26(17.6)	31(26.5)	22(20.8)	88(16.7)
85B	10(6.5)	13(8.8)	12(10.3)	5(4.7)	40(7.6)
85C	2(1.3)	0(0.0)	1(0.9)	3(2.8)	6(1.1)
85D	0(0.0)	2(1.4)	1(0.9)	1(0.9)	4(0.8)
90A	0(0.0)	6(4.1)	13(11.1)	17(16.0)	36(6.8)
90B	1(0.7)	5(3.4)	7(6.0)	5(4.7)	18(3.4)
90C	0(0.0)	1(0.7)	1(0.9)	1(0.9)	3(0.6)
90D	0(0.0)	0(0.0)	0(0.0)	2(1.9)	2(0.4)
95A	1(0.7)	0(0.0)	9(7.7)	18(17.0)	28(5.3)
95B	2(1.3)	1(0.7)	2(1.7)	4(3.8)	9(1.7)
95C	0(0.0)	0(0.0)	0(0.0)	5(4.7)	5(1.0)
95D	0(0.0)	1(0.7)	1(0.9)	1(0.9)	3(0.6)
유의수준	$\chi^2=8.6^* df=3 p<.05$				

음영은 10 이상의 빈도임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75A(39.4%), 80A(22.6%), 80B(8.3%) 순으로 30대 여성은 75A(27.7%), 80A(17.6%), 80B(6.8%) 순으로 40대 여성은 85A(26.5%), 80A(19.7%), 85B(10.3%) 순으로, 50대 여성은 85A(20.8%), 95A(17.0%), 90A(16.0%), 90A(16.0%)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브라지어 치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치수가 커져 사이즈를 크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실제체형에 비해 큰 사이즈를 선택한

다는 선행연구<sup>16)</sup>의 결과로 예측해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조임이 덜한 신체치수보다 큰 사이즈를 선택한다고 사료된다.

## (2) 연령별 거들의 치수분포도

성인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거들의 치수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17>, 성인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거들의 치수는 64M(33.4%), 70L(30.3%), 76XL(15.1%), 82Q(8.9%) 순으로 64M-70L 치수에서 성인여성의 과반수 이상(63%)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64M(53.8%), 70L(20.8%), 58S(9.4%) 순으로, 30대 여성은 64M(41.1%), 70L(31.8%), 76XL(10.3%), 순으로 40대 여성은 70L(42.7%), 76XL(24.0%), 64M(13.3%) 순으로, 50대 여성은 70L(27.4%), 76XL(24.2%), 90QQ(24.2%) 순으로 나타나 거들 역시 브라지어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큰 치수를 착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브라지어와 거들의 치수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큰 치수에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치수가 커지는 이유와 함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선택에 있어서 압박감이 없는 여유 있는 의복을 선택하는 착용습관의 영향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 4. 파운데이션의 세탁 및 관리

##### 1) 파운데이션의 세탁방법

파운데이션의 세탁방법을 조사한 결과<표 18>, 전체적으로 ‘손으로 세탁’이 54.4%, ‘세탁기로 세탁’ 34.6%, ‘세탁기의 세탁망에 넣어 세탁’ 8.8%, ‘손세탁 후 세탁기로 다시 한번 세탁’ 2.2% 순으로 응답하여 성인여성들은 파운데이션 의류를 손으로 또는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탁기로 세탁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비교적 올바르게 파운데이션 의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표 17> 연령별 거들 치수분포도

						명(%)
연령 치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58(S)	10(9.4)	6(5.6)	0(0.0)	1(1.6)	17(4.9)	$\chi^2=100.8^{**}$ $df=15$ $p<.01$
64(M)	57(53.8)	44(41.1)	10(13.3)	6(9.7)	117(33.4)	
70(L)	22(20.8)	34(31.8)	32(42.7)	17(27.4)	105(30.0)	
76(XL)	9(8.5)	11(10.3)	18(24.0)	15(24.2)	53(15.1)	
82(Q)	6(5.7)	11(10.3)	6(8.0)	8(12.9)	31(8.9)	
90(QQ)	2(1.9)	1(0.9)	9(12.0)	15(24.2)	27(7.7)	
전체	106(30.3)	107(30.6)	75(21.4)	62(17.7)	350(100.0)	

음영은 10 이상의 빈도임

<표 18> 파운데이션의 세탁방법

						명(행%)
세탁방법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손세탁	95(31.5)	79(26.2)	70(23.2)	58(19.2)	302(54.4)	$\chi^2=0.3$ $df=9$
세탁기 세탁	52(27.1)	53(27.9)	44(22.9)	46(22.4)	192(34.6)	
세탁기의 세탁망에 넣어 세탁	10(20.4)	21(42.9)	10(20.4)	8(16.3)	49(8.8)	
손세탁 후 세탁기로 세탁	5(41.7)	1(8.3)	2(16.7)	4(33.3)	12(2.2)	
전체	162(29.2)	154(27.8)	126(22.7)	113(20.4)	555(100.0)	

2) 파운데이션 변형요인

성인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의 변형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와이어 불량(41.4%), 변색(28.8%), 브래지어 날개가 늘어남과 어깨끈이 늘어남(7.3%), 어깨후크 빠짐(6.6%) 순으로 나타나 브래지어 부속의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브래지어의 와이어 불량(41.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40대와 50대는 브래지어의 와이어 불량과 변색이 비슷한 비율로 연령적 차이를 보였다.

3)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선의뢰 여부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선의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0-21>과 같다. 전체의 96.6%가 불만사항을 제기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전체의 95.3%가 수선의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불만표시를 하지 않는 비교적 소극적인 소비자행동 양상을 보였다.

<표 19> 파운데이션 변형요인

변형요인	연령					합계	유의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브래지어 와이어 불량	82(36.1)	72(31.7)	42(18.5)	31(13.7)	227(41.4)	$\chi^2=50.4***$ $df=24$ $p<.001$	
변색	53(33.5)	43(27.2)	37(23.4)	25(15.8)	158(28.8)		
브래지어 날개가 늘어남	9(22.5)	11(27.5)	8(20.0)	12(30.0)	40(7.3)		
어깨끈이 늘어남	5(12.5)	6(15.0)	16(40.0)	13(12.3)	40(7.3)		
어깨후크빠짐	3(8.3)	9(25.0)	11(30.6)	13(36.1)	24(4.4)		
레이스가 찢어짐	7(29.2)	6(25.0)	5(20.8)	6(25.0)	36(6.6)		
바느질선이 터짐	1(9.1)	4(36.4)	4(36.4)	2(18.2)	11(2.0)		
원단의 미어짐	1(12.5)	3(37.5)	1(12.5)	3(37.5)	8(1.5)		
어깨고리가 빠짐	1(25.0)	0(0.0)	2(50.0)	1(25.0)	4(0.7)		
전체	162(29.2)	154(27.8)	126(22.7)	106(19.3)	548(100.0)		

<표 20>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이의제기

불만제기여부	연령					합계	유의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있다	6(31.6)	6(31.6)	3(15.8)	4(21.1)	19(3.4)	$\chi^2=0.6$ $df=3$	
없다	157(29.2)	148(27.5)	123(22.9)	110(20.4)	538(96.6)		
전체	163(29.3)	155(27.7)	126(22.6)	114(20.5)	557(100.0)		

<표 21>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수선의뢰 여부

명(행%)

연령 수선의뢰 여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있다	10(38.5)	8(30.8)	2(7.7)	6(23.0)	26(4.7)	$\chi^2=3.6$ $df=3$
없다	153(28.9)	146(27.6)	123(23.3)	107(20.2)	529(95.3)	
전체	163(29.4)	154(27.8)	125(20.3)	123(20.3)	555(100.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체형과 기호에 알맞은 우수한 파운데이션의 생산 및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여성의 의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59세 성인여성 563명을 대상으로 파운데이션 제품 중 브래지어와 거들의 실제적인 착용현황을 연령별로 상호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브래지어는 거의 모든 여성(9.7.7%)이, 거들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64.8%)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률이 낮아지며 주로 브래지어만 착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갖춰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시간은 브래지어의 경우 과반 이상이 하루 종일 착용하는 반면 거들의 경우 외출 시간 착용하는 등 선택적 착용의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파운데이션의 착용시간은 짧아지며 의례성을 많이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목적은 브래지어의 경우 젖꼭지점등 가슴형태가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착용목적이 뚜렷한데 반해, 거들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그 밖에 군살을 눌러주거나 생

리시의 안정감을 착용목적으로 들었다. 한편 파운데이션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브래지어와 거들 모두 답답함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4.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브래지어의 경우 평균 15세를 전후해 착용을 시작해 파운데이션 중 시착시기가 빠른 편이므로 신체성장에 맞춰 시작하는 반면 거들의 경우는 평균 19세에 착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파운데이션의 시착시기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인여성은 평균적으로 브래지어 5.7매와 거들 2.2매를 소유하고 있는 있으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러 개의 브래지어와 거들을 소유하고 있다.

6.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치수인지도는 30대, 20대 순으로 젊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및 수유로 인해 변형된 체형을 보정하는데 관심이 있는 연령층인 30대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브래지어 보다는 거들의 치수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성인여성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브래지어 치수는 75A(21.3%), 80A(18.3%), 85A(16.7%) 등이었고 밑가슴둘레는 75-90, 컵치수는 A컵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브래지어의 치수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성인여성은 비교적 올바르게 파운데이션을 세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운데이

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선을 의뢰하는 비율은 낮아 소극적인 소비자행동양상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인여성은 연령층에 따라 파운데이션 착용상태를 달리하여 20대의 경우 가장 브래지어와 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시착시기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파운데이션의 주요구매층이다. 30대 여성의 경우 파운데이션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시 이 연령층을 타겟으로 할 경우 체형보정을 위한 기능성이 강화된 소재를 사용하는 등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요구된다.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체형에 대한 인지도나 파운데이션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으로 파운데이션 판매시 이들에 대한 파운데이션 치수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운데이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파운데이션 관련업체의 마케팅 활동 방향 및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이러한 연령적 특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송미령(1974), “우리나라 成人女子의 衣服構成을 爲한 人體計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平岡禮子(1990), 若いあなたにこそ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①, 衣生活研究, 17(1).
- 3) 平岡禮子(1990), 若いあなたにこそ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②, 衣生活研究, 17(2).
- 4) 間壁治子·赤塚博江(1985), 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①,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6(11), pp.464-472.
- 5) 김효은 · 김순분(1991), 여성의 속옷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 계명연구논총, 9집, pp.199-316.
- 6) 이경화(1996), “화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 논문집(자연·가정·예능) 31.2, pp.1445-1475.
- 7) 손희순(1991),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32집, pp.45-98.
- 8) 감영숙 외 2인(1996),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일반환경변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4권 제2호, pp.277-302.
- 9) 손희순(1996),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구매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제 11집, pp.87-705.
- 10) 이춘화(1993), “착용상태로 본 Brassiere 형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제 5차 한국인 신체치수조사 자료, Size korea(<http://sizekorea.ats.go.kr/>)
- 12) 강여선(1991), “기능적 브래지어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3) 차수정(2005),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패턴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손희순, 앞의 책, pp.66-68.
- 15) 안영숙, “FOUNDATION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6) 김영숙 외 2인, 앞의 책, p.297.

(2005년 9월 7일 접수, 2005년 12월 8일 채택)